

## 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등 '밤 9시 통금'

내일부터 16일간 전국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포장·배달은 24시간 가능 ... PC방 등 다중시설 밤 10시까지

18일 0시부터 광주·전남 등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 등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종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16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일상회복 멈춤을 1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사적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추가확산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내년 1월 2일까지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적모임과 시설이용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는 사적모임 6~8명,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까지 시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열을 만에 일상회복 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다.

광주에선 이날도 오후 2시 현재 26명의 신규 확

진자가 나오는 등 1주일 간 하루 평균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등에선 이번 고강도 거리두기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힘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의 발발도 거세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은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적용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연말특수 매출로 내년 1, 2월 비성수기를 견뎌내려 했는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조치가 '후퇴'가 아닌 '속도조절'이라며, 연말까지 3차 접종과 미접종자 접종, 중환자실 등 의료역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사각지대 없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는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시작된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가중학교 강당에서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예진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합평, 오미크론 감염 13명 추가 ... 정은경 "3차 접종 땀 예방 효과 70~75%"

전남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13명이 추가돼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합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가됐다.

지난 12일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어린이집 원아 2명·어린이집 교사 1명에 이어, 어린이집 원생 5명·교사 1명·가족 2명, 보건소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4명, 주민 1명 등이다. 합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확진자 24명 중 이날 현재까지 16명이 오

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 기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변이 여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확진자가 8명 남아 있고, 밀접접촉해 자가 격리된 주민도 434명에 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개 시군 중 강진·곡성·해남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2시까지 전남에서는 여수 등 8개 시군에서 22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355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3차 접종은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방역상황, 3차 접종 효과, 안전성을 근거로 3차 접종 참여를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최근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기본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할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도 90% 이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도 70~75%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3차 접종을 전제로 달고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룹이나 화이자, 화이자, 화이자를 3번 연속으로 맞은 그룹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71~76% 정도의 방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신가중,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	▶6면
2022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완료	▶14면
KIA 스토브리그 시계 주말이 분수령	▶18면

## 최대 15cm 눈 '겨울 추위'

광주·전남에 대설 예비 특보  
내일 최저기온 영하 9도 '뚝'

광주·전남지역에 오늘 최대 15cm의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권에 근접하는 등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으로 유입, 기온차에 의해 발달한 눈 구름대로 인해 17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인 해수면과 대기의 큰 온도차로 인해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봤으며, 광주와 영광·장성·함평·담양 등에 대설 예비 특보를 발효했다.

눈뿐만 아니라 영하권 아래의 강추위도 예상된다. 17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1~영상 5도, 최고 기온은 5도 미만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18일은 일 최저기온은 영하 9~영하 3도, 최고기온은 5도 미만으로 올 들어 가장 춥겠다.

기상청은 아울러 주말인 18일에도 정오부터 19일 오전까지 기온차에 의해 발달한 눈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해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7일과 18일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19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운 날씨에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세계 속에 우뚝 솟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 서석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담양 소쇄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 / 역사문화명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묘지, 담양 소쇄원 등 42개소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 문화, 생태유산 등을 연계하여 교육, 관광,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